

기독교일보

리폼즈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대한예수장로교회 미주합동총회 인준신학교
2012년 가을학기(신·편입)학생모집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818)337-8280 / E-Mail: spcr113@hot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음차, 차종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Tel. 213-739-0403 Fax. 718-228-9506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ly 12, 2012 Vol.34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종족에게!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미전도종족선교대회 참가자들이 미전도종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한 후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PCUSA총회 남녀의 결혼 지켜냈다

불과 30표 차이로... 한인목회자들 “끝까지 싸워 교단 정체성 수호할 것”

미국장로교(PCUSA)가 제220차 총회에서 338대 308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혼의 정의(定義)를 지켜냈다. 지난 제219차 총회에서 동성애 성직자와 직분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PCUSA는 이번 총회에 결혼의 정의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으로 바꾸자는 헌의안이 올라와 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총회는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은 교단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성향과 배치되는 Dream Act를 지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나 최고의 이슈는 결혼의 정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장장 4시간의 격론이 오고 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원영호 목사(남가주하와이대회장)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PCUSA를 사랑하고 이끌고 계심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어오던 PCUSA가 이번에 결혼의 정의까지 수정했다면 소속 교회들의 대

거 탈퇴 등 여러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번에 보수주의자들이 결집해 이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그는 총회에서 “이 교단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민을 왔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배웠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특별발언해 큰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PCUSA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번 총회에서 오히려 희망을 봤다”며 “교단의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절대다수의 보수세력이 결집했다”고 전

했다. 한편, 강일준 목사(한미노회장은) PCUSA가 최근 동성애 직분자 안수를 허용한 이후, 산하 교회들의 교단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 결혼의 정의를 지켜낸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단에 남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을 통해 교단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이 떠날 경우, 결국 교단은 자유주의로 흘러 버릴 수밖에 없다”며 “떠나지 말고 싸워 이기자”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이번 총회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한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원 목사 역시 “목회자들이 이번 총회 결과를 놓고 심기일전해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평신도 가운데에는 여전히 교단의 동성에 정책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시민권을 포기하겠는가? 오히려 그 시민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하지 않는가? 우리도 교단에 남아 교단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역시 보수주의자들의 파위가 확인됐다. 결혼의 정의 변경과 관련된 선(先)투표 결과 28대 24로 불리했지만 결국 최종 투표에서는 이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올해 부총회장에 당선된 타라 맥케이브 목사는 동성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임 압박을 받고 결국 당선 3일만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있는 성직자들은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하라며 교단을 압박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수석부회장 보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9일 오전 11시에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개최하고, 수석부회장에 이우형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기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영모 목사는 한국 광주시에 소재한 모 교회에 청빙돼 지난달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수석부회장직에 오른 이우형 목사(미주제일교회)는 공천을 받아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소감의 자리에서 이우형 목사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영호 목사



강일준 목사



이우형 목사

성시화대회 및 한여름성령축제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대표회장 류당열 목사)와 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각각 집회를 준비 중이다.

먼저 한기총 미주총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국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초청해 LA성시화대

회를 열고 10월 6일 한인의날 행사에 맞추어 퍼레이드에도 참여한다. 다민족 합동결혼식도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결혼식은 10월 6일 오후 5시 중앙루터교회에서 홍재철 목사 주례로 이뤄진다.(문의 213-858-3781)

매년 대형연합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OC전도회는 올해 장학봉 목사를 초청해 한여름성령축제를 연다.

이번 성령축제는 17일부터 19일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1747 S. Nogales St. Rowland Hts., CA91748)와 20일부터 22일까지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714-719-5412) 빅터 박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북새통

- » 목회자의 서재 | 읽고 쓰는 맛을 아는 사람, 박광철 목사
- » 강진웅의 책임기 | 원색적 복음대로 “난, 래디컬하게 살래”

16면 헬스 & 라이프

커피, 알고 마시면 ‘약’ 모르고 마시면 ‘독’

17면 여행 & 레저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다! 오토캠핑의 매력”

나라종합정비 & 바디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련세금납,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on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찬상의 메아리 맑은 영혼의 몸짓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이 온다!”

월드비전 신명회합창단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2012 전 미주 순회 콘서트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World Vision®

전세계 음악 전문가로부터 ‘찬상의 메아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월드비전 신명회 합창단이 오는 7월 남가주를 찾아옵니다. 소프라노 홍혜경과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과 같은 많은 음악인을 배출한 50여년 전통의 월드비전 신명회 합창단은 수평 같은 목소리와 최상의 하모니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전세계의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공연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에 한인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공연은 미주 한인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공연장	7월 25일(수) 오후 7:30	7월 27일(금) 오후 7:30	7월 28일(토) 오후 7:00	7월 29일(일) 오전 11:00	7월 29일(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1750 North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	LA 사랑의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213) 975-1111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562) 860-5451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818) 366-0089	리버사이드 한인침례교회 5413 Tyler St. Riverside, CA 92503 (951) 687-4070	

음악감독 김희철

전임지휘 최연주

반주 이미연

공동주최: World Vision · 월드비전 · 한국일보

공연문의: 월드비전 코리아테스크 1-866-육이오-1950 / 웹사이트: wvkor.org

월드비전(구 신명회)은 통일교와 무관한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이며, 월드비전 신명회합창단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지난해 꿈땅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의 홀사모 가정 자녀들. 이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 생활을 통해 비전과 영적 충전을 얻고 돌아갔다.

한국 홀사모 자녀 꿈땅으로 온다

목회자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후 실의에 빠져 어렵게 살고 있는 한국의 홀사모 자녀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는 '제4차 어린이 꿈땅 프로젝트'가 오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25일간 시미밸리의 한 크리스천스쿨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어머니꿈땅을 통해 홀사모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준 정한나 사모가 주최하고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가 후원한다. 한국 어린이들은 25일간의 꿈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내달 12일 남가주광영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미국인 크리스천 가정들이 어린이 한 명씩을 맡아 약 3주간 양부모 역할을 하는 꿈땅을 통해 학생들은 성별과 나이가 같은 미국인 어린이와 방을 함께 쓰며 영어는 물론 미국의 문화와 가정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고, 두명의 미국인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관광지와 유원지를 투어할 예정이기도 하다.

단장 정한나 사모는 "사실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올해 어린이 꿈땅은 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고 간증했고, "앞으로 채워져야 할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원 문의) 213-500-2186

빅터 박 기자

성령은 일하는데 사람은 일하지 않는 그곳 향해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성령은 일하는데 사람은 일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전세계에서 단 한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은 20억명에 달한다. 그런데 파송되는 선교사 가운데 단 3%만이 미전도종족에게 향하고 나머지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즉 다른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간다.

9일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미전도 미개척종족 선교대회에서 강사로 선 안강희 선교사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인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참석자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그는 "선교사들이 순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인도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증언하며 "성령은 필립 골듯이 역사하는데 정작 이곳에 사역하러 오는 선교사

가 없다"고 탄탄했다. 그는 인도의 한 교회가 3명으로 시작돼 단 2-3년만에 3백여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사례를 들었다. 이 교회는 158개 가정교회를 개척했으며 각 마을에 25개 교회를 개척했다. 힌두교 사제가 회심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일도 빈번하다.

그는 선교사들이 미전도종족을 외면하는 이유로 "두려움"을 꼽았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과연 이곳에서 해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등이다.

그러나 안 선교사는 "우리는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 순종만 하면 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한 가족을,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

이 바로 이곳"이라 했다.

그는 "여름 시즌 많은 한인교회들이 해외로 단기선교를 가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곳보다는 오지를 택하라. 아니면,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하루나 이틀만 시간을 내서 미전도종족에게 가 보라"고 권했다. 세계협력선교회(Global Assistance Partners)나 CCC 등에 문의하면 현지 교회와 직접 연결돼 있는 현지 선교사들을 컨택할 수 있으며 미전도종족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그는 각 교회가 기도후원, 혹은 물질후원으로 돕는 것도 전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박원철 목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CCC가 제작한 예수영화를 상영했던 일을 회상하며 "1년

뒤 이 곳을 방문했을 때 한 마을 전체가 복음화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해 벌써 98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그 역시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데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증거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유치한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인데 우리는 현재의 삶에만 급급해 이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지상명령으로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도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미주한인신학교 "경사났네"

미주 지역 4개 한인신학교가 2년마다 개최되는 신학교협회(ATS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

미주장로회신학대, 조지아크리스찬대, 그레이스미션대, 미드웨스트대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됐던 신학교협회 모임에서 회원학교들의 표결을 거쳐 준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으로 승인됐다.

ATSS는 ABHE, TRACS 등과 함께 종교교육 관련 학위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로 학부과정 이후 신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인준한다. 현재 ATSS는 북미주에 산재한 260개 이상의 회원 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 4개의 한인신학교는 준회원(Associate Member)-후보자(Candidacy)-정회원(Member)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준회원 자격 부여 5년 이내에 후보자격을 인준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한인신학교 중에 후보자격을 취득한 곳은 웨퍼드대학교와 윌드미션대학교가 있지만, 아직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학교는 없다. 한주연 기자

세리토스장로교회 1.5 Merits 한여름밤 말씀축제 개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는 이때,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가 지난 6일 제4차 한여름밤의 말씀축제 '1.5 Merits'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이민사회 1.5세대의 지난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교회, 선교, 문화, 리더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린다.

강사로는 6일 이승한 목사(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담임), 13일 백운영 선교사(GP 국제디렉터), 20일 김

은일 교수(웨스트민스터세미너리 캘리포니아 신약학 교수), 27일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나선다.

6일 이승한 목사는 '교회: 하나님의 총만함'(렘1:15-23)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선포 자리에서 이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여려운 도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세리토스장로교회가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1.5세 목회자를 초청해 집회를 연다.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형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형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홍재철 목사 초청 선교대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주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님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일시 2012년 10월1일(월)~ 10일(수)

- 행사내용
- 1) Los Angeles 성시화대회(교포 연합부흥회) 주 강사 : 홍재철 목사
 - 2) 코리언 퍼레이드 참가 일시: 2012년 10월 6일(토) 오후 2시
 - 3) 다민족 합동 결혼식 일시: 2012년 10월 6일(토) 오후 5시 장소: 중앙루터교회 주례: 홍재철 목사

* 다민족 합동 결혼식 신청자 모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추천받습니다.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연락바랍니다. T: 213) 505-8228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후원 :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미주기독교교육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
지문위원장: 김 사무엘 목사 지문위원: 박영창, 양승걸, 최학량, 정여창 목사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공동회장: 박효우, 표세홍, 강부웅, 정해진 목사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열쇠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대화

최고의 준비는 원문, 그리고 기도

설교자, 설교를 말하다

박성근 목사의 설교 철학



박성근 목사. 그의 목양철학은 천의지성(天意地成)이란 한문이 역자에 담겨 걸려 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소서"란 뜻일까? 설교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목회자에게 설교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설교(說敎)란,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말들의 조합일 뿐인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하는데(골10:17)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란 무엇일까?

박성근 목사는 미주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설교자다. 그의 설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설교학 실습 시간에 꼭 배우는 목회자의 손동작과 말의 강세도 그 예컨선 찾기가 어렵다. 졸릴 것 같다고? 자칫 하면 졸릴 수도 있겠지만 그의 설교에 진하게 배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자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듯 싶다.

서울대 출신, 명문 사우스웨스턴대학교 신약학 Ph.D., 미남침례회 한인총회장, 골든게이트신학교 교수인 타이틀보다 로스앤젤레스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명설교가로 통하는 박성근 목사를 만나 보자.

-설교란 뭘니까?

저는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요20:31) 그렇다

면 우리의 설교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조명하고 드러내는데 설교가 맞추어져야 한단 이야기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에 불과합니다.

-설교에서 고지식하게 예수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설교학적인 면에서 볼 때, 70년대 이후 등장한 내러티브 설교, 즉 이야기식 설교는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주목해 '들리는 설교'를 하자는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겐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what to preach)보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how to preach)가 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전통적 설교의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인 예수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을 때는 좋죠. 듣고 나면 "그래서 뭐?"(So, What?)가 됩니다.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에게 있어서 '무엇을'이란 초점이 없다면 설교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컨텍스트를 잘 잡아도 텍스트가 무시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감동을 주기 위해 조작된 스토리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동하지만 그게 조작된 것임을 알고 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설교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막상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양자의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습니까?

이는 저 역시 매일 싸우고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보배로운 진리를 현 시대 사람들이 듣도록 전하는 것이 설교자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저는 "예수라는 분명한 주제를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설교의 핵심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강해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딱딱해지기 쉬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늘 현실의 문제를 읽고 고민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설교의 노하우를 알려 주신다면?

예를 들어,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이

박성근 목사의 설교 준비는?

월- 성경 본문을 원어로 읽으며 목상 기도하며 말씀의 대지(大旨) 파악

화-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고민 설교 구조 및 개요 초안 완성

수- 설교문 초안 완성 후, 이 내용을 저녁 목자 모임에서 40분간 강의

목- 설교문 초안을 놓고 기도하며 보다 구체적, 실질적으로 정리

금- 설교의 아웃라인 최종 정리해 주일에 발행될 주보에 게재

토- 철저히 휴식하며 컨디션 조절

주일(오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기도하며 설교 내용 및 논지 최종 정리

세벌의 위협으로부터 숨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장면을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너무도 잘 압니다. 따라

서 설교를 듣기도 전에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눈치를 채고 귀를 막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귀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현대인이 겪고 있는 탈진(burn out)과 연관시키면 어떨까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음이 다 타 들어가 버린, 누가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핏 터지는 상태,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조명하면 어떨까요? 성도들의 아픔과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나이가 들고서야 알게 된 점은 바른 설교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교는 설교, 기도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묻어있는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는 원고는 같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주일 새벽 마지막 기도와 목상에서 설교가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훌륭한 설교는 기도에서 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2세들이 보는 한인 이민교회 대안은 무엇인가



민청 목사



정대성 목사



박영배 목사



노승환 목사

이민신학연구소는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한인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인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략테이블을 2박3일간 개최했다.

이 전략테이블에는 소장 오상철 목사를 비롯해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등 교계 1세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2세는 민청목사(Covenant Fellowship Church, IL), 박영배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A), 정대성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O) 등 미국 내 2세 목회를 이끌고 있는 1.5세 출신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참여했고 나성영학교 교육부를 이끌었던 1.5세 목회자인 노승환 목사(토론토말알교회)도 캐나다에서 참여했다. 평신도 중에는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가 참여해 큰 의미를 더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전략테이블에서 나온 각종 평가와 견해들을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지난 호 1세 목회자들의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2세들의 평가를 실는다. -편집자 주

제2회) 2세 목회 테이블 참가자: 민청, 정대성, 박영배, 노승환 목사

감사 및 바람: 서베이를 통한 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이런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어 이민목회가 분명한 통계 수치에 근거하여 실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민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의 정확성, 보다 세밀한 통계의 유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민신학연구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 성숙해 나가기를 기도한다.

We thank for this opportunity to look at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es with tangible statistics. We pray that this kind of research work will continue to provide solid data to help Korean-American churches so that they could provide specific services that will bring benefits to people and to the community. We know that this kind of research work is desperately needed. For the credibility of the statistics, it is vitally important to have them categorized and analyzed

in scientific manner so that it could be used in ministry with certainty. We pray that KAIT will continue to grow to serve the community.

I. 주요 문제들

1. 1세가 보는 2세의 문제

- a. 소명의식 부족: 하지만 소명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1세들은 사역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2세들은 가정이 사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b. 대화와 이해의 문제: 서로가 대화를 위하여 시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c. 문화적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 과연 문화의 '정석'이 있는가?
- d. 평신도가 생각하는 2세의 문제가 생각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헌신, 사랑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라는 2세 지도자의 모습이다.

2. 2세가 보는 2세의 문제

- a. 사역자들의 소명 부재에 관한 문제뿐

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합당한 교회론의 부재로 인해 소명의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b. 2세 지도자들 안의 비전의 부재: 비전이 부재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2세 사역자들은 한인 1세로부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백인 교계 지도자들을 통하여 사역 모델을 배우기 때문이다.

3. 2세가 보는 1세의 문제

- a. 문화: 2세들은 1세들이 문화에 대해 권위적 자세를 보인다고 응답했다. 2세들이 정말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2세의 문화는 결코 미국 문화라고 할 수 없다. 미국 내 2세 한인인 독특한 문화라고 해야 한다.
- b. 2세들을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자세

4. 침묵의 탈출 (조용한 이탈)

- a. "침묵의 탈출"은 한인교회 안에 독특

b. 한 모델이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새로운 모델도 필요함도 인식한다.
c.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II. 대안들

1. 세대간의 차이를 인정하되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대화를 시도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장을 제시한다.

Recognize th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To achieve this end we need to provide places and times to have both sides come to engage in communication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2. 지도자 모델링

- a. 미국 내 신학교에 문화적 민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과 과정 개발 요청
- b. 1세와 2세를 교육,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 발행, 배포
- c. 복수 강사들이 2세와 1세의 이해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강의, 멘토, 쌍방간의 대화 가능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예: 2박 3일 간의 멘토링 수련회)

3. 어떻게 침묵의 탈출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 a. 예방 접근: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주체로서 동반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교과 과정 개발
- b. 치료: 캠퍼스 사역 보조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과정 및 직후 교회를 떠나는 수치가 90%인 것을 감안할 때, 캠퍼스 교회 사역은 절대적 필요 사역이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캠퍼스 사역을 돕기 위하여 "캠퍼스 입학 사역" 등의 후원 운동을 조속한 시일 내 조직 실시해야 한다.

III. 결론

1. 금번 포럼에서 언급된 사역 제안들이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권면한다.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ction plans suggested by this forum should be implemented in a near future.

2. 이런 연구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어 교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지역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한다. Continue the research ministry to provide better information to churches so that it could help Korean-American churches to better serve the community.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각의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뉘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17기, 2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3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며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고 계십니다.

모집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영접하신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분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희망 선교사)
2. 선교의 사명을 가진 평신도로서 의료선교사가 되고자 하시는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분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개강일자: 2012년 8월 6일 (화요일)
교육장소: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8218 B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교육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교육내용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1. 근육 교정학: 통증을 전문치료하는 의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3. 척추 교정학: 비튼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4. 영양 물리학: 식품의 영양과 인체의 영양 (자연식의 원리)

교육의 특징
수기치료의료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회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는 유일한 선교법인입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562-547-8653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선교

사도행전 3:1~15

장 재 호
서울 성은교회 목사



사도행전 3:1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2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밧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11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अब्रा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지체로 헌신 봉사하게 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1.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2:1-3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충만을 받았습니. 신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전2:12-13)

고린도전서 2:10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하셨으며 요한복음 16:7-8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인간의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므로 세상에서 구원 얻는 성도가 많아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5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니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

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9-10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하셨음을 유념하고 각자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리며 얼마나 순종하며 요긴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롬 8:16)하신다고 하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생의 보증으로 임하신 것(요14:16)입니다.

2. 성령의 지시에 의한 사역

본문 3:1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후 시간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앉은뱅이라는 신체상의 불구를 빌미로 성전 미문에 앉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종교심리를 기대하며 구걸해 온 앉은뱅이를 이전에 도 여러차례 보았고 또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날 특별히 그 앉은뱅이를 두 사도가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 앉은뱅이를 고치게 하셔서 복음의 위력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가 미문에 앉아 구걸해 온 세월이 40여년(행4:22)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미문 앞의 앉은뱅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40여년이 된 앉은뱅이를 두 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사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기폭제로 삼으셨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의 증인이 되어 선교확장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신도 중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하여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진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마가 요한)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떠나버리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이 일로 감정이 격해져 기도도 하지 않고 임의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성령)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비로서 그날 밤 기도하던 중 환상을 통해 마게도나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 유럽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쓰임 받는 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행16:6-15).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정하신 경륜을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와 타의미를 맞추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

다. 신체적 불구나 기타 문제로 인해 고통과 절망에 시달리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그 어떠한 불행도 다행으로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성령의 역사는 복음확증(福音確證)을 위한 것

본문에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통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많은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느끼며 앉은뱅이가 나온 것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며 앉은뱅이를 고치신 이는 자신들이 아니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애써 확증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계(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축사(逐邪)나 병 고치는 일로 복음을 전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가져 받았으니 가져 주어라”하셨으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 받은 결과는 몽땅 주님께만 영광 돌려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한 잘못된 자기행각과 같은 소문들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자기들에게로 향하는 기대와 인기를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확증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각오가 무엇인지 깨닫고 선교 사역에 더욱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확증된 바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는 선교확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험벗고 굶주림은 물론 매를 맞고 고국을 치르기도 하며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굴절이 없이 재산과 생명까지 빼앗기면서 낙심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4:12-14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 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

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이라”하심을 믿어 위로와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하신 히브리서 11:24-26 말씀과 달리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믿음은 만나보기 어렵고, 언제부터인가 경제 부흥의 영향을 받은듯 신앙마저 육신의 소유를 따라 이 세상의 허황된 꿈에 빠져들어 기복신앙(祈福信仰)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현대판 가톨릭 유다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악용하며 자기행각을 입히는 잘못된 일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렵고 안타깝게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1-4에 “너희 중 장로(목회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利)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며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지지 아니하노라”(행 20:24)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없는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빌 1:20-21)는 말씀을 본받읍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명분이나 이권을 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 위에 바로 선 믿음, 성령충만하여 우리 스스로 복음의 제물 되기를 힘써 내 가정, 내 교회부터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 얻게 하여 굶어 죽는 수가 늘고 있다는 북녘의 불쌍한 동족을 구원하고 그 여세로 세계 선교에 힘써 인류 복음화를 앞당겨 드리는 성령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복기독교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립신문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쁘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마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교사,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y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마태복음28:18-20)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의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흥생 비저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희노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국인목사회, 남가주 초교회, 벤델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총회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3천명 유권자 등록 위한 총영사배 골프 대회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주최 · 교협 주관 · LA총영사관 후원

“한인사회 공익과 정치력 향상을 위해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후원을 위한 총영사배 골프 토너먼트전이 24일 오후 12시에 Westridge Golf Club(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90631)에서 개최된다.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LA총영사관 후원으로 열리는 이 대회(대회장 배무한 LA한인회장)는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위상과 정치적 힘을 높이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열린다.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LA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가주교회 협회장 변영의 목사는 “한인사회는 이민 역사 이래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미국 주류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적 힘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3천명 유권자 등록 후원을 위한 이번 골프대회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대회에서 약 1만~1만5000불을 모금해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의 봉사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가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유권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는 시니어,



유권자 등록을 위한 골프 대회에 관해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비시니어로 구분해 진행되며 그린피, 김밥, 저녁식사 등이 포함된 1인당 참가비는 100달러이다. 부상으로 각종 골프채가 주어진다.

교협 박세현 총무는 “한 팀이 4명으로 구성되며, 한 교회당 4명 이상을 선발해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최측은 유권자 등록 세미나를 8월 28일 오후 7시에 한국교육원에서 열 예정이기도 하다. 이 세미나에 지역교회 담

당교역자를 선정해 홍보요원으로 훈련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는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남가주교협, LA의사협회, 한인커뮤니티번화사협회 등 총 21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골프대회 문의: 213-255-1725, 213-272-7208, 213-675-940 유권자등록세미나 문의: 323-404-3147 토마스 멩 기자

살롬... “불안과 혼돈의 세상에 평안 전하는 교회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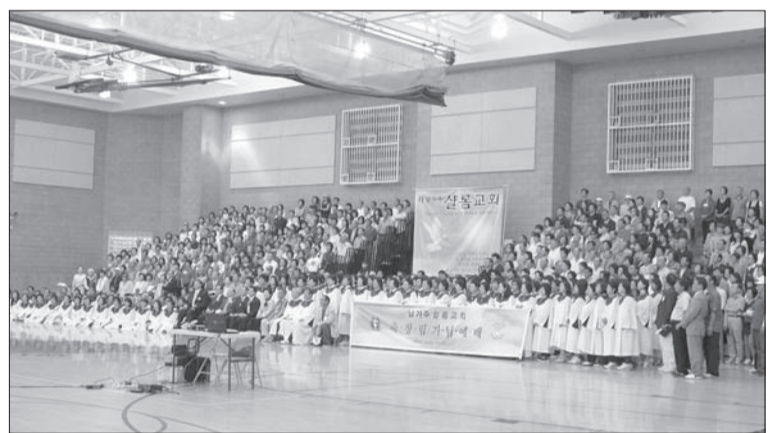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담임목사)가 8일 오전 10시에 토랜스에 위치한 Dee Hardison Sports Center에서 창립기념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의 내홍으로 인해 분립을 결정한 김준식 담임목사 및 사역자와 성도들 750여명은 남가주살롬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예배 인도를 맡은 김준식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더불어 사명을 주셨다.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에 그 평안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며 “사람이 평안을 얻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살롬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침착하는 교회’(제3:7-13)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박광철 목사(조이헬로교회)는 이 교회에 많은 도전의 메시지를 줬다. 박 목사는 “우리가 믿지만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살롬교회에 많은 것을 주시려고 문을 열어 놓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요즘과 같이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때도 없다”며 “꼭박도 없는데 몸을 사릴 이유가 없다. 교회가 커



남가주살롬교회 성도들이 창립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초대목사 안동성 목사는 축사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을 탈출한 살롬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 목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주침묵교회 단장 이영선 목사는 “살롬은 신앙 최고의 경지이며 완전함을 이야기한다. 이제 안식과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바울 목사(토랜스조은교

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성현 목사(드림교회),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윤충열 목사(미주영광교회)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 왔다. 이날 예배는 김준식 목사의 인도하에 조광호 장로의 기도, 존 유 목사의 영어설교, 박광철 목사의 설교, 안동성 목사와 이영선 목사의 축사, 김준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남가주살롬교회의 비전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는 교회로 ‘삼중성’인 교회가 있는 교회로 ‘삼중성’인 전도가 이뤄지는 교회로 ‘삼중성’인 봉사가 이뤄지는 교회이다. 문의) 3341 Civic Center Dr. Torrance CA90503, 310-787-1004 토마스 멩 기자

KAPC LA노회

음향영상 미디어 세미나 개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가 주최하고 레이저비전과 탐미디어가 주관하는 음향영상 미디어 세미나가 지난 9일 LA한인타운에 소재한 한미장로교회(이윤영 목사)에서 있었다.

레이저비전의 나단 김 씨가 음향에 대해, 저스틴 리 씨가 영상 및 조명에 대해, 탐미디어에서 설교 CD 제작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 시간에는 교회 웹사이트에 매달 25만명의 유저가 방문해 베스트 인터넷홍보상을 받은 예수마음교회 김성일 목사가 웹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강의했다. 특히 그는 미자립 교회와 소규모 교회들이 비전자를 전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레이저비전은 음향과 영상 및 조명에 대한 전문 컨설팅 회사로, 콘서트나 대형교회를 컨설팅한 노하우가 있다. 현재는 LA한인타운 내 교회에 한해 무료로 음향과 영상 및 조명에 대한 문제를 컨설팅 해 주고 있다. 또한 탐미디어도 미자립교회에 설교CD 100개를 무료로 제작해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본보에서 후원해 마련됐다.

문의) 레이저비전 323-730-5050 탐미디어 323-265-0244

빅터 박 기자



음향영상 미디어 세미나에 참석한 노회 관계자들

-교계 단신

나성세계교회 무료 어린이프로그램

LA 한인타운 나성세계교회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 어린이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8학년이 대상이며 영어, 수학, 피아노, 종이접기, 탁구 등으로 구성된다. 점심 제공. 장소: 나성세계교회(301 S. Harvard Bl. Los Angeles, CA90020) 문의: 213-219-9229

제3차 예수님의마음전도법 세미나

예심전도법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법이다. 남가주빛나리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사모, 사역자 및 전도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예심전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30불(점심 및 간식비)이다. 장소: 남가주빛나리교회(1201 S. Beach Bl. #110 La Habra, CA90631) 문의: 714-401-9874

남가주가스펠교회 대사회 섬김사역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무료한방 침술사역과 무료 초급 기타, 드럼 교실을 시작한다. 무료한방 침술사역은 주일 오후 1시부터 교회 바로 옆 새생명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기타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드럼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진행된다. 주소: 8100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92844 문의: 714-799-5673

오페라캘리포니아합창단 정기공연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 7월 14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에서 글로벌메시미션(대표 송정명 목사) 주최, 글로벌메시미션 여성합창단 후원,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 박희민 목사)의 특별 후원으로 개최된다. 장소: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os Angeles, CA90004) 문의: 323-574-2747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취급하시는분 하숙하시는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 | | | |
|------|-------|------|
| 오징어젓 | 우렁된장 | 간장고추 |
| 어리굴젓 | 냉이된장 | 된장고추 |
| 가리비젓 | 양념게장 | 명란젓 |
| 황새기젓 | 양념깻잎 | 창란젓 |
| 더덕무침 | 간장깻잎 | 낙지젓 |
| 파래무침 | 된장깻잎 | 조개젓 |
| 무말랭이 | 고추잎무침 | 갈치젓 |
| 고추전어 | 장어구이포 | |
| 연근조림 | 마늘쫄무침 | |

서광식품

(213)268-7004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프로모션 변경 세일!

세일기간 :
7월 31일까지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 구연산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오리지널7병+알파0병 =
7병 (210불)

100불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4병+알파2병 =
6병 (220불)

100불 +tax

프로모션 C

오리지널1병+알파4병 =
5병 (230불)

100불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50불/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구연산복용체험담

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 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기뻐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앓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뒷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줌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제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들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음향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한 북음화 위해 체제 변화가 최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기독교의 대북선교는 첫째, 북한 공산정권과 협력하지 않는 방법(탈북자 구출, 풍선 보내기, 대북 전단 살포, 라디오 보급)과 둘째, 북한과의 협조를 통한 구제 사업 및 기관 건립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북한 내부로부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역으로, 북한 체제 유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경제적 자립과 기독교 북음 전파를 위한 움직임이었다.

공산당원의 가족으로 평양에서 태어나 요덕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한 북한전락센터 강철환 대표(조선일보 객원기자)는 대북 선교로 북한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북한 내부에 직접 들어가 자유세계를 알리는 선교, 즉 두 번째 방법은 아직 시상조라고 진단했다. 북한 체제의 목표가 민생이나 국민경제 발전이 아니라 공산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력 확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北, 체제 변화 없이는 어떤 사역도 악용 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유입돼야

강 대표는 북한의 북음화는 '북한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자금 지원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라디오나 USB, MP3를 이용해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분석했다. "북한 특성상 체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등

소평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움을 주게 되면 정권이 계속 악용하기 때문에 도와줄수록 정권은 강화되고 인민은 탄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 대표는 북한 변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1. 탈북자 강제복송 철폐 2. 정치범 수용소 폐지 3. 경제 개혁개방 추진을 꼽았다.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경제 개혁 개혁은 북한 체제 확립의 핵심 인물 이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 발전을 위해 제시한 사항이다.)

탈북자 강제복송이 중단되면 탈북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와 체제 붕괴를 일으키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개혁과 개방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수용소 폐지는 북한 내 인권 보장과 기독교 북음 전파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 대표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3만 8천개, 그 밖에 숭배물을 7만개나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체제 유지를 위한 집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유나 타협은 맞지 않다"며 "탈북자 강제 복송 철폐와 정치범 수용소 폐지, 라디오 MP3와 같은 정보 확산은 북한에 개혁 개방을 가져오고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북음화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기대 설립 목적과 기능 달라

강 대표는 평양과기대 역시 기독교에

서 지원한 여러 기관과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과 그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평양과기대는 세계적인 전문기술교육의 요람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교회 및 단체, 개인 후원으로 450억원이 넘게 투입돼 100만㎡(약 33만평) 부지에 10여개의 학사동, 종합동, 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농업식품공학·정보통신·산업경영 등 3개 분야에 약 400여명의 학생이 모든 수업을 영어로 듣고 있으며 학생들은 4년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비, 식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용은 일체 무료다.

강 대표는 "북한에 종합대학이 없어 평양과기대를 세운 것이 아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종합대학만도 몇 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대학이 필요한 것"이라며 "평양과기대는 북한 체제유지와 특권층의 교육에 기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적 전문 인력 양성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평양과기대의 선교적 목적에 대해서도 "김일성 주체사상 외에 보편적 인간 평등과 사랑, 구원을 추구하는 일체의 신앙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환경에서 '북한 선교'에 의미를 두는 것은 허위"라며 "대학 내 채플은 북한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초빙교수와 가족 등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의 실질적 권한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외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개념 등 자본주의 가치를 도입하는 통로로서의 기능보다는 체제 유지와 정치적 선전도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김 기자**



시애틀에서 북한 인권과 북음화 집회를 하고 있는 강철환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에 나온 그의 손엔 성경이 들려 있었다.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제 21기 훈련생 모집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훈련기간 2012년 7월23일(월)~ 2012년 10월10일(수) 주 3회(월화수반/ 토요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토요반: 오전 9:00~1:30 무료설명회 2112년 7월23일(월) 오전 10시, 저녁 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2년 7월24일(화)~2012년10월13일(토) 주 3회 (월화수반/ 목금토반) 훈련시간 월화수: 저녁 7:30~9:10 목금토: 오전 10:00~11:40 무료설명회 2012년 7월21일(토) 오전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
- ▶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 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3단계 활용반

- ▶ 훈련시간: 오후 12:00~1:20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 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고, 훈련하라!
- ▶ 책한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CCM 가수 소향 <나는 가수다2> 첫 출연에 1위... 3관왕



인기 프로그램 '나 가수'에 소향이 출연해 CCM 가수의 실력을 과시했다.

8일 '나는 가수다2'에 CCM그룹 POS 소속 소향 씨가 첫 출연에 1위를 차지하며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소향은 나가수2 방송 시작 사흘 전부터 참가 사실만으로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의 소유자로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향은 예측시스템 1위, 외국인 사전 출구조사 1위에 이어 이날 경연 최종 1위에 오르며 '3관왕'이 됐다. 이로써 소향이 비슷한 스타일의 '나가수1'의 박정현 씨처럼 인기몰이를 하게 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소향은 사전 인터뷰에서 CCM 가수로서 대중가요 무대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가끔씩 대중가요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기획사가 그쪽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향의 말처럼 그는 이미 SBS <스타킹>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준 바 있으며, 나가수1의 박정현·이영현과 함께 '다바 프로젝트'라는 앨범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 "가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두가 힘들어 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음악적 색깔을 최고의 연주자들과 맞춰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

다. 소향은 "인생은 한 번인데... 가슴 뛰는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간장이 많이 되지만 편곡이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나왔다"고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등장해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을 부른 소향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강약과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표현력을 통해 관객들의 혼을 빼놓았다. 소향은 한쪽 어깨가 흰색 드러나는 흰색 원슬더 드레스를 입고 '여신'의 자태를 뽐냈으며, 시원시원한 고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무대를 보여줬다. 소향의 가창력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던 관객들은 소향의 경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소향은 "나가수 무대는 나에게 선물"이라며 "조금씩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나가수2 B조 공연에서는 소향 외에 가수 한영애, 김건모, 박상민, 정명, 김연우 등이 출연했다. 이들 중 소향과 한영애, 김연우가 상위권에 진출해 7월의 가수전에 올랐다.

첫번째 순서로 무대에 오른 정명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곡으로 유명한 '하운드 독(Hound dog)'을 선택해 신나는 댄스 무대를 꾸렸고, 박상민은 퍼시 슐레이지의 '웬 어 맨 러브스 어 우먼(When a Loves A woman)'을 특유의 허스키 목소리로 불렀다. 한영애는 밥 딜런의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를 통한 적이고도 진지한 분위기로 노래했다.

이대용 기자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라”

태릉선수촌서 런던올림픽 파송예배 드려



오정현 목사

“하나님! 선수들로 하여금 메달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런던을 향하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앞에 두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정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향해 한 기도를 더 믿으라고.

국가대표기독교신우회와 사랑의교회는 4일 저녁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런던올림픽 파송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기원에배’를 드렸다. 역도의 장미란 선수와 탁구의 유승민 선수 등 현역 국가대표들 1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예배는 전 국가대표 사격선수인 박철승 목사(순복음노원교회)의 사회로 정병철 코치(육상국가대표)가 기도, 장미란 선수가 성경봉독을,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한 가운데 드러졌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능력’(마 13:31-33)을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현 목사는 “천국은 작은 겨자씨, 보잘 것 없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세상이 보기에 내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런던올림픽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집중하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단지 메달만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하고 어떤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자로 진정한 승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한국선수단의 필승과 체육인을 통한 세계복음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선물증정식 및 파송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은 “선수들이 하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현역 국가대표선수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기원에배를 드렸다.

나눔을 굳건히 믿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바란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성경적 방향성 제시”

한기총 신학위 WCC와 이단 대처 등 연구



한기총 지도부와 신학위 관계자들이 위촉식 후 회의를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6일 오전 11시 특별위원회인 ‘한국기독교신학연구위원회’(이하 신학위) 모임을 열어, 운영위원과 전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한기총 신학위는 우선 WCC의 문제점, 종자언 사대, 교회 후임 담임목사 청빙, 사이비·이단 대책 등을 연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학위의 운영위원으로는 정인도 목사(공동회장), 이강평 목사(공동회장), 임종수 목사(총무협 회장), 윤종관 목사(공동회장), 이건호 목사(부회장) 등이, 전문위원으로는 각 교단의 신학교나 신대원의 총장(약인자) 및 박사들이 임명됐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신학위에서 합의된 의견을 통해 한국교회 앞에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수립해 나가기 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하고, “세 분야로 나누어 시대적 정황에 따라 이슈가 되는 신학적·신앙적 논제들을 연구 발표하게 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개인이나 교단의 권위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결과를 수용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주장을 수정할 수도 있는 장(場)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신학연구위원회’는 약 2시간의 회의를 거쳐 위원회를 세 분야로 나

누었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단에서 신학 교수 및 박사들을 추가 위촉하여 그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다음은 분야별 신학위원 명단.

제1분야
가. W.C.C. 문제점에 관한 건
나. 한기총 신학정책제정 문제에 관한 건
전문위원: 김영우(합동), 김향주(대신), 나용화(개혁), 도한호(기침), 백종구(그교협), 변종길(고신), 안인섭(합동), 손석원(예성), 조영엽(합동), 황한호(그교협) 박사

제2분야
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건
나. 목회자 정치 참여의 건
다. 사회복지, 문화복지의 건
전문위원: 권상훈(그교협), 김재용(예성), 김희석(합동), 박우삼(그교협), 박희석(합동), 심태식(통합), 유홍욱(예성), 이신열(고신), 이충일(통합), 장창만(통합) 박사

제3분야
가. 교회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
나. 사이비이단대책의 건
다. 교회 성장의 건
전문위원: 김선배(기침), 김성수(고신), 김송수(개혁), 서요한(합동), 서재주(개혁), 손석태(개혁), 유장춘(합동), 이종경(합동), 정창욱(합동), 주건국(통합), 한용관(통합) 박사

류재광 기자

이찬수 목사 “10년 후 교회 해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0년 후 교회 해체 작업을 하겠다. 교인의 절반 혹은 4분의3 정도를 떠나 보내 약한 교회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1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육관 증축이 완료된 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잠을 설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결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백여원을 들여 매입한 교육관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뜻도 밝

혔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 ‘교회가 비대하고 네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라 말하며 “교육관도 10여 년을 잘 쓴 다음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쓰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사람 끌어 모으려고 혈안이 된 적이 없다”면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대용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ww.ptsa.edu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대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다섯 비전의 날개로
웅비(雄飛)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세계를 섬기고 변화시킬 귀한 인재를 초청합니다.

1 다섯 가지 비전 1

1. 다문화사회 및 세계 선교현장에 맞는 양질의 신학교육
2. 경건에 깊이 뿌리내린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3.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교육
4. 급변하는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읽어내는 인문학적 교양교육
5. 실제적인 이종언어교육

1 특 전

-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총회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본교단 목사 안수 후 미국이나 선교지에서 목회 가능.
- 본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목사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본 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명 가능.
- 본교 졸업 후 본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미국장로교회 (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 본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로부터 인준받았고, 성서대학협회 (ABHE) 정회원 학교로서 북미주 (캐나다 포함)에 산재한 200여 개 신학대학으로 전학 및 진학가능.
- 본교는 신학교협회(ATIS)로부터 준회원으로 인준받았고, 정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
- 본교는 여러 장학제도가 있음. (성적, 근로,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형제자매, 부부, 지정 등) .

1 입학

- 가을학기 접수 마감일 : 2012년 8월 17일(금)
- 가을학기 개강일 : 2012년 8월 27일(월)
(여름계절학기 : 2012년 6월 4일~8월 17일, 수시등록 가능)
- 모집 : 대학부(신학과-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 장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e-mail: office@ptsa.edu
www.ptsa.edu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희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 초 정신의 흠, 바른교회관의 흠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 (화-토)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침례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9:15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생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교회안내 문의
T. 213.739.0403

뉴욕 할렐루야대회 개최 “이 도성을 십자가로 물들이자”



뉴욕교협이 매년 주최하는 할렐루야대회가 1천5백여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감사 이태희 목사

신앙의 핵심 메시지 전해

2012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3회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려, 1천5백여 명의 뉴욕지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다.

이번 할렐루야대회 개막식에는 뉴욕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석, 예배당을 가득 메웠으며 3시간 이상 진행된 집회에도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다. 뉴욕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첫날 할렐루야대회는 이규섭 목사의 인도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교협 회장 양승호 목사 대회사, 명성솔로리스트 '하나님의 은혜' 특별찬양, 허윤준 목사 대표기도, 황규복 장로 성경봉독, 박희소 목사 감사 소개, 퀸즈한인교회 연합찬양대 '문들이 머리 들라' 찬양, 이태희 목사 설교, 조승수 목사 헌금기도, 현영갑 목사 광고, 장석진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퀸즈한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어린이 할렐루야대회에도 1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할렐루야대회의 은혜에 동참했다. 변현수 전도사(뉴욕초대교회 유년부)가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이 쉽게 복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양승호 목사는 대회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



이태희 목사

화시키다. 복음으로 세계의 중심 뉴욕을 변화시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꿈꾼다. 뉴욕교회는 지난 32년간 해마다 복음화대회를 개최해 왔다. 금년에도 그 꿈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한다”며 “오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또 뉴욕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 도성을 십자가로 물들이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는다”고 선언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중에도 할렐루야대회를 이끈 이태희 목사는 연신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첫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행3:1-10)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태희 목사는 유쾌한 입담을 과시하면서 신앙의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대원 기자

수도한인침례회 수양회, 은혜 가운데

목회는 완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 가족수양회에 목회자와 그 가족 110명이 참석해 영적으로 충전받고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주최 ‘2012 여름 가족 수양회- 우리 함께 하나되자(약 4:3)’가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메릴랜드 오션시티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목회자 가족 총 110명이 모인 이번 수양회는 저녁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영적 재충전을 돕고 낮 시간에는 해수욕 등을 통해 가족들과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장을 제공했다.

개회예배, 폐회예배를 비롯 새벽예배, 두 번의 특별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재교육의 기회도 제공됐다. 이번 수양회의 메시지는 목회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누고 성경적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 목회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웠다는 평이 많았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이흥 목사(델라웨어인침례교회)는 “목회자로서 은혜를 받자해 사실을 호도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고백하며 “때로 목회자들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은혜로운 설교를 전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정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날 저녁 예배에서 설교한 정세영 목사(뉴욕침례교회)는 “매달 1400명의 목회자가 사임한다는 미국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목회는 치열한 전투 현장이며, 때로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속박하는 중압감과 공황장애에 몰고 가기도 한다”면서 “그럴 때 우리는 목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우리는 그 완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격려했다.

수도한인침례회 소속 임도균 목사(워싱턴지구총교회)와 분석원 목사(버지니아 사랑의나눔

교회)는 각각 ‘맞춤형 이민설교-내가 섬기는 청중은 누구인가?’,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짚어 주고, 성경을 기반한 목회(혹은 신앙) 여정의 단계적 성경 해석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집회는 안디옥침례교회 데이빗 타올러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마지막날 저녁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울동을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세대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둘째날은 가족과 함께 하는 자유시간으로 채워졌다.

폐회예배에서 신석태 목사(워싱턴원로목사회장)는 “이번 수양회 예배 및 특강 내용 중에는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청의가 강조됐지만, 성화라는 ‘삶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해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자성의 메시지가 많았다”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증거 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목회에 임했던 것 공격을 잃지 말고,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회장 최인환 목사는 “이번 수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메릴랜드에서 총회를 열고 바로 수양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수양회를 열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목회자들을 섬기려는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며 도움을 줬던 지역 교회에게 감사를 돌렸다.

권나라 기자

PCUSA 35세 총회장 탄생 뉴저지의 닐 프레사 목사



예장 통합총회 서기 김동윤 목사와 성찬을 공동집례하고 있는 총회장 프레사 목사

동성애자 안수 반대 교회들의 노회 이전건 승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장로교(PCUSA) 제220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인 닐 프레사 목사(Neal D. Presa, 미델섹스장로교회 담임)가 4차 선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다.

프레사 목사는 뉴저지 중부 엘리자베스노회에서 출마한 35세의 젊은 목회자로, 앞으로 2년간 미국장로교를 이끌게 됐다.

그는 드류대학교 철학박사(Ph.D.),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석사(Th.M.), 샌프란시스코신학교 교역학석사(M.Div.),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회사 전공, U.C. Davis에서 정치학 및 역사전공 등을 거쳐 그동안 교단의 중앙협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뉴브루즈워신학교 설교학 및 예배학 초빙교수, 서머셋크리스천칼리지 초빙교수, 드류대학교 실천신학부 강사, 미국장로교 엘리자베스노회 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5일 오후에 속개된 총회에서 아틀란타 베다니교회를 비롯한 6개 총회교회와 4개 개척교회가 대서양한미노회로,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가 동부한미노회로 회원권을 이전하는 안건이 적극적으로 가결됐다.

한인교회들의 한미노회로의 이전은 미국 노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성직에 안수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데 대해 적극 반대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한미노회가 한인교회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일 오후 5시에는 한인총대들을 환영하는 '코리안 디너'가 핏츠버그한인연합교회의 주관으로 열려, 70여 한인 총대 및 각 한미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 7시 30분에는 핏츠버그 제일장로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0주년을 축하하는 예배가 열렸다.

여기에는 미국장로교의 총회장을 비롯한 주



신임 총회장 닐 프레사 목사

요 임원들과 14명의 한국 장로교회의 대표단, 한미 양국의 선교관계자 250명 정도가 참석했다.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는 "하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미국장로교의 헌신적인 선교활동의 열매로 한국의 장로교회가 발전해, 금년에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국장로교가 한국교회에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박위근 목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가 왔으며 우리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한 주님을 믿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니, 이제 미국장로교와 한국장로교가 힘을 합쳐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미국장로교의 신임총회장 프레사 목사와 통합총회 서기 김동윤 목사가 공동집례한 성찬식에는 양국의 장로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했다.

성찬식 후 양국 교회는 십자가 장식과 성구 두루마리를 선물로 교환하고, 대표자들이 인사를 나눈 후 증경총회장 이승만 목사의 축도로 축하예배를 모두 마쳤다.

축하예배 이후에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총회장 임형태 목사)가 주관한 환영 리셉션이 이어졌고, 통합총회가 준비해 온 총회 100주년 축하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크리스천에 의해 세워진 미국, 종교의 자유 박해

미국이 7월 4일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된 독립기념일을 맞아, 크리스천들의 자유는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들의 실태를 파악해 온 오픈도어선교회와 칼 몰러 회장은 "자유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세운 이들의 피로 산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을 그저 폭죽놀이와 바비큐로 즐기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이 위대한 국가는 종교주의자들이 아닌 크리스천들에 의해 세워졌고,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세워졌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잃고, 기독교가 더 종교보다 더 박해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일부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이슬람 관련 수업을 정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성경공부나 기독교 클럽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혹은 허용하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칼리포니아에서는 집에서 진행된 성경공부를 이웃이 신고해 벌금을 물게 한 경우도 있었다.

권나라 기자

브라질, 가톨릭 신자 첫 감소... 개신교는 계속 증가

브라질 가톨릭 신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개신교 신자 수는 10년 만에 3천만여 명이 늘어났다.

6월 30일 브라질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브라질의 가톨릭 신자 수는 1억2천330만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170만명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브라질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1960년 93.1%, 1980년 89.9%, 2000년 73.6% 등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0년에는 64.6%로 줄어 들었다.

이대용 기자

가장 최근에는 최고법원의 합헌 판결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와 두고, 크리스천들은 종교의 자유 박해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생명연장약물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생명을 끊는 약물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 ▲선택 낙태 비용을 매달 1불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 등이다. 미국인 노동자 절반이 매달 1불 이상 지불할 때, 매년 낙태 지원 비용으로 9억2천400만불이 지원되는 셈이다.

크리스천법률센터 LDA(Legal Defense Alliance)는 "이 이야기는 결국 2백만명 이상의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비용을 강제로 지원해야 하는 꼴이 된다. 미국 역사상 이 같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연합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워싱턴 교협 교육분과부위원장 오선일 목사는 3일(화) 집회를 마치면서 "이 땅을 위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쟁취한 수많은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이제는 우리 이민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 함께 중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일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신익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길로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교회안내 문의
T. 213.739.0403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청년토론회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자녀되어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우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249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부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완벽한 노후준비를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www.hansolins.com

하지만 이에 반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좋은 직장이나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정년은
갈수록 짧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대책은 커녕 먹고
살기도 바듯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젊을때 부터 **전문가**에 도움을 얻어
은퇴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사업체 / 자동차 / 집 보험 / 생명보험 / 롱텀 케어 보험
저축성 보험(학자금, 은퇴)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우대플랜

HANSOL PRS

35년 전통의 한솔 종합보험이 개발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Policy Review Service System으로 지금 현재 고객이 보유하신 보험, 은퇴, 재정, 학자금 관련상품 등에 관하여 빠진 것은 없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리뷰와 상담을 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알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재정검 해 보세요.

President & CEO *William S. Hwang*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Since 1977

상담 예약 및 문의 CA Lic. #0E52100

800.300.0703 / 213.487.4900

본사 Los Angeles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지사 San Francisco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BOOK

목회자의 서재



通

읽고 쓰는 맛을 아는 사람 박광철 목사를 만나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쯤 떨어진 터헝가에 자리잡은 조이헬로십교회를 찾았다. 이곳 숲 속에 있는 서재의 주인 박광철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교회 사무실에 딸린 이 서재에서 그는 집필가, 번역가, 상담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책을 파먹으며 글을 쓰고 있다.

폼새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담하고 단출한 그의 서재는 1954년 독일계 미국인이 직접 지은 집이다. 각종 신학 서적이나 경건 서적을 비롯해 흥미로운 소설과 시집 등 보물 같은 책들이 비교적 많이 쌓여 있다.

이 서재는 박 목사에게 생명의 산실이다. 그는 이 공간에서 매일 읽고 쓰며, 먹고 산다. 벽 이곳 저곳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가 손수 그린 수채화 20여 점이 걸려 있다.

읽고 쓰는 일은 박 목사에게 습관이며 일상이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성경을 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그에게 성경 말씀이란 마치 현미 같아서 씹으면 씹을수록 꿀맛이 난다. 아침 일찍이 경건의 시간을 보낸 뒤, 서재로 나가 창문 밖으로 펼쳐진 푸른 숲과 새들과 다람쥐들을 빗살아 책을 읽다 밥을 먹고 산책을 다녀 오고 또 책을 읽는다. 독서와 그림, 명상과 산책으로 채워지는 그의 시간은 느릿하면서도 알차다.

책은 그의 삶에 소중한 친구다. “책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 주거든요. 책을 통해 위대한 작가들을 만나고, 그 중에 좋은 생각은 제 것으로 삼기도 하죠.”

그는 책들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한다. 매일 펴서 읽어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애인 같은

책(Lovers)’이 첫 번째 부류고, 자주 읽고 도움을 받는 ‘친구 같은 책(Friends)’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셋째는 필요하거나 생각이 날 때에 가끔 읽는 ‘아는 사이의 책(Acquaintances)’이다.

‘애인 같은 책’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읽는 성경 외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들이다. 스코틀랜드의 전도자인 오스웰드 체임버스가 40대에 쓴 책인 《My Utmost for His Highest》는 그가 지난 30여 년간 매일 읽은 소중한 ‘애인 같은 책’이다. 1970년 쯤 한국어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어느 선교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책이다. 《Streams in the Desert》(L.B. Cowman), 《Springs in the

서재는 생명의 산실(産室) ... 독서는 습관이며 일상

책은 내 삶의 소중한 “애인, 친구, 아는 사이”

Valley》(Mrs. Cowman), 《Our Daily Bread》도 수년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 온 소중한 ‘애인들’이다.

‘친구 같은 책’들도 있다. 성경 강해서, 성경 사전, 신앙인의 자서전과 전기류, 경건 서적, 설교 예화집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찰스 스펔전과 헤이든 로빈슨의 책을 특히나 좋아한다. 이러한 책들은 설교와 강의를 준비할 때 필요하기에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둔다.

‘아는 사이의 책’들도 있다. 아내인 이상은 사모가 먼저 읽고 소개해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소설 종류, 오래된 신앙 서적들, 선교와 전도에 관한 책들, 신학 전문 서적들, 세계 여행 가이드 관련 책

들, 그리고 책꽂이에 가득한 한 번씩 그의 손이 닿았던 책들이다. 이들은 비록 매일 읽지는 않아도 종종 참고하기에 그와 가까운 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책들이다.

박 목사의 신앙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꼽으라면, 단연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는다. 그레이엄 목사와의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1968년 박 목사가 아직 파과파릇한 대학생이었을 때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파란 눈의 선교사를 통해 그는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다. 그 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 박광철에게, 이 선교사는 그레이엄 목사를 소

다. 지금까지 낸 책만 무려 19권이요. 그 중엔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베스트셀러도 있다. 번역가로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수많은 독자와 만나왔다. 그가 번역한 책들 중에는 오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신앙적인 어려움, 궁극증 등에 답하는 상담서나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에세이를 담은 책들이 많다.

책을 읽고 쓰는 맛을 아는 박 목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활자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의 길에 희미하지만 빛을 비춰주고 싶다고 소망을 밝힌다. “휘청거리는 이를 붙잡아 주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히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한나 기자

■ 박광철 목사는 누구?

유머가 풍부하고 웃음이 많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다섯 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독학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 해 동안 평신도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서울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신교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서울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신길성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LA 동양신교교회 담임목사로 섬겼다. 현재는 꿈과 심이 있는 만남의 공동체로 알려진 조이헬로십교회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내걸고 열심히 이민 사회를 섬기고 있다. 《프랑스 항구보다 마음의 항구가 오래간다》의 저자 이상은 사모와 목회 동반자로서 특히 가정사역으로 이민 사회의 가정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기쁘게 사역하고 있다.

강진웅의 책 읽기

원색적 복음대로 “난, 래디컬하게 살래”

젊은 나이에 부임한 교회를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만든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중국의 가정 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에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교회는 그렇게 좋은 건물과 멀티미디어 장비를 다 갖추고도 예배 속에서의 열정과 은혜가 중국의 숨소리 죽인 가정교회보다도 훨씬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은 미국에서 최연소 초대형교회 담임목사라는 칭송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은 역사상 최연소 최소형교회 담임목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갈등하고 있던 차였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숨죽인 기도소리를 듣고 있자니, 기도 내용으로 치면 미국의 성도들의 기도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바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아무 시설도 교회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가정교회, 편안한 의자나 멀티미디어는 커녕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조차도 내걸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똑같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목숨을 건 순종의 고백이었고, 숨죽인 예배 속에 뜨거운 은혜는 편안한 미국교회의 냉랭함과 는 비

교할 수가 없었다.

교회로 찾아가는 발걸음조차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선교사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는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들의 입술의 고백은 삶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실천했던 목회의 새로운 시도들, 새롭다기보다 제목 그대로 근원적이며, 원색적이고, 뿌리로 돌아가는 과격한 시도들이었다. 래디컬(radical)이라는 단어가 근원적, 원색적, 뿌리, 과격함 이 네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음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줄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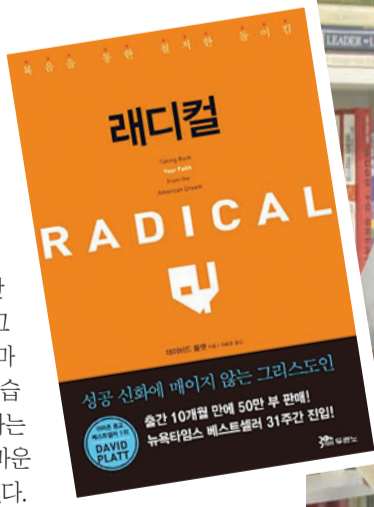
성공신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민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멀리 있고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에 있음을 관파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원색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어차피 대다수의 이민교회들은 성공신화를 달성했다고 자부하기에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포자기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쪽에 가까이 있음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는 고백이다. 큰 건물, 모든 편의 시설, 현대적인 성도들을 만족시킬 만한 세련된 프로그램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의 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읽은 후 교회 성도들과 2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세 번의 주일에 래디컬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전교인이 래디컬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다. 책의 맨끝에 있는 서약서 중에서 1. 전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2.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 읽겠다고. 3.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겠다고. 4.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회 안팎의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이민교회 안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필요없는 소모품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고, 크고 편안한 교회를 지향하던 허망한 생각들이 잠잠해 지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회의 하드웨어적 현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어떤 모습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2주간 동안의 “래디컬 새벽기도회, 원색적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며 심지어 선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평소보다 좀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교회를 새로 찾아온 중년 부부의 집을 아내와 함께 심방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도 하고 즐겁게 대화도 나누며 그분들을 축복해 드리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귀가할 시간이 돼서 차가 주차돼 있는 곳으로 그 부부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남편들이 아내가 먼저 차에 오르도록 자동차 문을 열어 주고 그 후에야 운전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신사도(紳士道)를 발휘해 본다고 아내가 평소 애용하는 운전석 옆자리로 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마치 자기가 운전할 하려는 것 같이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까? 아내가 내게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준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부부가 "목사님, 평소엔 사모님 차문을 열어 주시지 않는 모

양입니다"라고 말해 모두들 피안대소 했습니다. 아내의 평소 애용하던 그대로 당연히 제가 가는 차의 반대쪽 문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경험은 저의 삶에 좋은 교훈을 던져 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때론 선을 행하려 하는 모습도 있지만 저 역시 제 안에서 악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의 악한 생각 또는 악한 모습에 대해 타당한 이유들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때로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마음 속으로 또는 밖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열거하며 우리 안에 본래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규명한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보고 연구하면 할수록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혹은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이 행동으로 혹은 말로 표현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선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안의 악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 안에 쌓아 놓았던 악들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양을 쌓으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된 근본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제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선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안의 악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 안에 쌓아 놓았던 악들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양을 쌓으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된 근본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제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한석호 목사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답을 찾아보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왕하2:11)

이 본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없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승천하지 않았다.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이다.

영어성경(NIV)을 참고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된다.

"As they were walking along and talking together, suddenly a chariot of fire and horses of fire appeared and separated the two of them, and Elijah went up to heaven in a whirlwind."

불수레와 불말을 병거라고 하는데 이 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격했다(separate)고 했을 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찬송가의 가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속에 있는 나의 "작음"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그것도 큰 사람 앞에 서면, 상대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크게 됩니다. 그의 광대한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악을 이길만큼 큰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 갔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만큼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 황제의 경호실장을 남편으로 둔 안방마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하며 그녀의 유혹과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1-3)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어떤 환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큰 사람이 되려면



김영길 목사
감사한교회

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넓은 인간관계를 가졌던 큰 사람으로 저는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와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휘하에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광야로 쫓아낸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압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때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에 일어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힘을 얻어 더 크게 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거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추운 겨울 따뜻한 햇볕 아래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서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람됨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정승이 다른 대감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과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만일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의 임금과 흉허물 없는 관계를 맺으며 서로 안심하고 왕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은 자신을 무시하고 음식을 보내지 않았다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원수를 갚으려는 다윗을 아버지인 이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좁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더 커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사람이 되려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용기를 구해 봅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업,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2 재외동포 차세대무역스쿨

OKTA Overseas Korean Next Generation Trade School

"21세기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육성"

차세대 청년 무역상은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 문화, 사회에서 자라난 세대로서 각국 주류 사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적인 통상 개척자이기에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향후 10만명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orld-OKTA 차세대무역스쿨 모집안내

- 기간 : 7월20일(금) - 7월22일(일)
- 장소 : Oxford Palace Hotel
- 인원 : 50명
- 교육기관 : WORLD-OKTA 로스앤젤레스 지회
- 추진기관
 - 1) 주관 : WORLD-OKTA 로스앤젤레스 지회
 - 2) 주최 : WORLD-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 3) 후원 : 지식경제부, KOTRA
- 참가 제외 대상
 - 1) 현지 유학생 또는 상사주재원 지원 불가
 - 2) 참가대상 자격에 미비되는 지원자 지원 불가
 - 3) 불법체류자 및 위법 행위자
- 특전
 - 1) 교육 우수자 한국방문교육 추천
 - 2) 대한민국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천
- 선정방법 : 지회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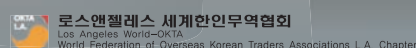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WORLD-OKTA 로스앤젤레스 지회
Tel : 323-939-6582 (OKTA)
Fax : 323-939-6583

Apply Online : www.oktala.net

World-Okta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 회장 서정일(John Suh) ● 이사장 민병호 ● 차세대무역스쿨위원장 케이 강



언제까지 귀신에게 물을 것인가



양성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지성의 전당, 게다가 미션스쿨이기도 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반경 1마일 안에 접치는 곳이 2백 곳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접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재미 중의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이론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한 귀신이 최영 장군 귀신입니다. 최영장군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잡귀들을 몰라가라고 하면 잡귀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한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최영 장군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강한 귀신을 불러와야 합니다. 최영 장군보다 강한 귀신이 감각찬 장군 귀신입니다. 그럼 감각찬 장군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최영 장군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럼 한동안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감각찬 장군 귀신이 또 괴롭히면 더 강한 귀신을 불러와야 하는데, 한국에는 없어서 중국 관운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럼 잠잠해지는가 하다가 또 괴롭힙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계속 귀신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했지만, 무당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말이 안되는 겁니다. 같은 귀신끼리 싸우면 그 귀신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귀신끼리 싸울 리도 없거니와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질 리가 없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자신들을 지옥 불에 멸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 것을 알고 있고, 망할 것이 분명한 귀신들에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물겠다는 것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물어서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몰상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당을 찾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미래를 맞출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미래를 조금 일찍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서울 왕이 엔돌의 어린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귀신을 불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귀신이 서울의 종말을 이야기 합니다. 서울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서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당이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실제로 천국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무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아니라 천사겠지요.

언제까지 귀신에게 물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귀신놀음에 돈을 바치고, 시간과 열정을 허비할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결국 무당놀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행복의 순간들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아무리 원해도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순간 행복했다가도 다음 순간 큰 낙담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큰 손자 하람이가 저희 집에 놀러왔다가 동생 하준이를 반갑다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10개월 밖에 안된, 아직 걷지도 못하는 하준이도 형을 반기며 빙긋 웃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차린 저녁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행복을 먼저 먹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교회에 들렀더니 페루와 몽골로 가는 선교팀들이기도회를 하며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 성전 2층에서는 청년들이 부르는 맑은 찬양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에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가 끝난 직후 제

사무실로 들어서는 K 집사님의 온 가족의 얼굴을 보니 한 눈에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몇 년을 고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영주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된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기도응답받은 그의 가족들을 보며 제 가슴 속에 갑자기 행복이 퍼졌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친 인생들의 목마름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묘한 것은 이런 행복감이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에 잠시 젖었다가도 다

음 순간 밀려 온 근심과 무거운 짐으로 가슴이 짓눌립니다.

반겨주는 형에게 심긋 웃어주며 좋아하던 하준이가 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며칠을 시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해 힘이 없어진 녀석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목요일 밤도, 선교훈련과 찬양으로 기쁜 성도들의 삶 속에 탄식과 신음도 끼여있는 것을 다음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새 성전 밖으로 나갔더니 어둠 속에서 어느 성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방금 전에 부르던 찬양의 기쁨과 행복이 다음 순간 그 분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의 순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행복을 담아 주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주님! 행복은 지속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순간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행복은 순간, 순간으로 쪼개져서 우리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 옵니다.

社說

둔감과 침묵도 죄다

요즘 교회와 사회에 닥쳐오는 동성애는 열풍 수준이 아니라 태풍 수준이라 할 만하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동성애의무교육법안인 SB48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는 동성애치료 금지법안인 SB1172가 추진 중이다.

반대쪽에서는 그동안 주민발의8, STOP SB48, PRE, CLASS ACT 등 조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 깨닫게 된다. 역리를 순리라고, 순리를 역리라고 하려 하는 그들의 총공세에 그동안 교회는 두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째는 둔감이다. 생리학자 베버는 '베버의 법칙'에서 인체는 약한 자극 후에는 더 강한 자극을 잘 감지하지만 아예 처음에 강한 자극을 받고 나면 감각이 무뎠어져 약한 자극이나 변화는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칙처럼 동성애 세력은 크게 문제를 터뜨려 이슈를 만든 후, 작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속이며 안심시켜 왔다.

미국성공회가 2003년 동성애자인 로빈슨을 주교로 임명할 당시 전 미국사회가 들썩였다. 이 충격적인 사건 후, 미국성공회는 보수적인 세계성공회와 마찰을 겪으면서도 계속 동성애자들을 주교 혹은 사제로 서품했다. 며칠 전, 미국성공회는 너무 쉽게 트랜스젠더를 사제로 서품하기로 결정했다.

PCUSA가 213차 총회에서 목회자, 장로 등 직분자의 요건 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조항을 빼려고 처음 시도했을 때만 해도 교단은 난리가 났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자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구 하나를 빼자는 데에도 말이 다. 물론 노회의 과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지만 이런 현의가 총회에서 317대 208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했다는 사실은 전세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경각심을 갖게 된 보수주의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216차 총회 때는 고작 4표 차이로 결혼 조항을 지켜냈다.

217차 총회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그럼 결혼 조항은 그대로 두되, 노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자"는 요상한 중재안을 내 298대 221표로 통과시켰다. 총대들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구사한 베버의 전술에 압도적으로 당한 것이다. 219차 총회

에서는 마침내 결혼 조항이 삭제되고 동성애 목사 장로 안수가 합법화 되어 버렸다.

이번 220차 총회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현의안이 올라온 것은 놀랍지도 않다. 고작 30표 차이로 결혼을 지켜냈던 사실도 놀랍지 않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어지지만 교회는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둘째는 침묵이다. 사회과학자 노엘레-노이만은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지배적 여론과 합치한다고 믿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킨다"고 했다. 다수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다. 유명 인사가 커밍아웃 할수록 전체 여론은 마치 동성애가 대세인 것처럼 포장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할 목회자들까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왕따가 되어 성장하지 못하게 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차별주의자로 보이게 될까 우려한 것이다. 교회까지 조용해지자 이 사회의 여론은 "동성애는 인권"이란 근사한 포장지를 갖게 됐다.

SBC가 최근 총회에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닌 죄"라고 발표하자 기독교 명문사학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데이빗 키 교수는 "스스로 분리하려는 노력"이라 폄하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중도적인 이들에게 무례한 행동"이라 말했다. 정리하면 동성애가 대세인데 이를 반대하더라도 조용히 속으로만 반대하란 소리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들"을 배려해 조용하란 소리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할 수 있는 이유도 두가지다. 교회와 성도의 감각이 아무리 둔감해져도 그들이 주님의 몸인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계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음란의 신 바알에 무릎꿇지 않은 7천명이 여전히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동성애의 역사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할 일도 두가지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과 그 민감성에 기초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일이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학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물 2층) LA, CA 90006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물 2층) LA, CA 90006

HEALTH & LIFE



커피(Coffee). 이제 밥이나 김치처럼 친숙한 이름이다. 잠든 몸을 깨우고, 가뭄한 컨디션으로 회복하기 위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커피다. 세계 제 1위의 커피 소비국인 미국인들에게 있어 커피는 마치 물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커피부터 찾는다.

산타바버라에 사는 한인 2세 주디 정(36) 씨 역시, 커피를 물 마시듯 하는 미국인 중의 한 명이다. 정 씨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첫번째 일은 커피 내리기다.

정 씨는 “거의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밥 먹고 한잔, 접대용으로 한잔, 심심할 때 한잔 하는 커피지만 하루 종일 마신 커피잔을 세어 보니 혹시 커피 중독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커피는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커피에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카페인이 1~2% 들어 있다. 커피 한잔(약 150ml)에 약 50~100mg이다. 미 FDA에서는 카페인은 안전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카페인은 하루 커피를 100잔 마시는 양에 해당하므로, 하루 한두잔의 커피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카페인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편두통의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좋아질 수 있으며, 치매를 예방하며 머리를 맑게 해 일의 효율을 높이고, 이뇨작용을 돕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당뇨병자의 경우 일반 차보다 당분이 낮은 원두커피가 좋다는 얘기까지 있다.

반면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고, 이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정맥을 발생시키고, 위점막을 자극하고, 요실금이나 골다공증,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불임가능성과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므로 임신한 여성들이나 가임기 여성들은 주의해야 한다.

◆매일 한두 잔은 꼭 마셔야 한다면 커피 중독증?

보통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매일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커피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다. 커피 중독은 하루 10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를 매일 섭취하게 되면 정신적 의존성이 생겨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금단현상을 일으키지도 않고 건강에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소아나 청소년이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

흔히 카페인이나 커피 속 성분이 아이들의 머리를 나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성장기의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중독에 약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중독되는 경우 금단현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고, 학생들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각성 상태가 길어져 머릿 속에 정보 입력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피가 직접적으로 지능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

커피는 오히려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유타대 의대 가정의학, 예방의학 미아 해시비 박사 연구팀이 5139명의 암환자들과 암 이외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 9028명 중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과 적게 마신 사람들을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구강암, 인두암, 경부암 발생률이 낮았다. 특히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의 경우 구강암 및 인두암 발생률이 39%까지 낮게 나타났다.

미국 하버드대 세러드 투워저 교수팀이 30~35세 여성 12만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카페인이 난소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 발병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 교열능력 좋아진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은 실제로 문장의 문법 실수를 잡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인이 문장 내 주어-동사 일치, 동사 시제 등의 실수를 잡아내게 해 준다는 것.

◆여성의 우울증 위험 낮춘다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한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5% 낮고,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은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

◆기저세포암 및 성인 당뇨병, 파킨슨병 예방 효과

커피에는 기저세포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 암 연구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피부암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며, 남성의 경우 9% 낮아진다는 것. 성인 당뇨병과 파킨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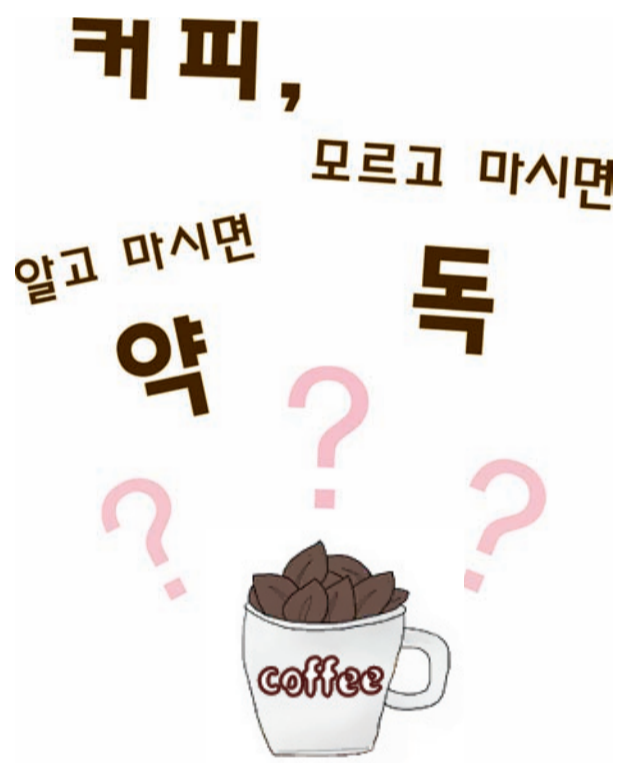
(Tip 이런 사람, 커피 마시지 마라!)

불면증, 불안장애, 심장병(부정맥), 과민성 방광 등이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소화기관을 자극해 위염이나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임산부가 카페인을 하루 300mg 이상 섭취하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저체중아 출산위험이 높아지고, 태아가 빈혈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칼슘이 부족하거나 뼈가 약한 사람도 카페인을 삼가는 것이 좋다.

(LA 인근 베스트 고급 커피 전문점)

남가주 일대에는 고급 원두의 질을 유지하며 커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급 커피전문점들이 굉장히 많다. LA 인근에 위치한 베스트 고급 커피전문점으로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어스 카페(Earth Caffe)', 실버레이크 인근의 '라밀 커피(LAMILL Coffee)'와 '인텔리젠트 시어(Intelligentsia) 커피 앤 티' 등이 유명하다. 특히 '인텔리젠트 시어'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커피를 만드는 핸드 크래프트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베니스와 할리우드에 위치한 '그라운드워크 커피(Groundwork Coffee)', 컬버시티의 '컨서버토리 포 커피(Conservatory for Coffee)', 롱비치의 '더 라이브러리 어 커피하우스(The Library A Coffee House)', 파사데나의 '조나 로사 카페(Zona Rosa Caffe)' 등이 주류사회 커피 애호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당분은 1/2로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명품 저당도 크림꿀

아이다호 크림허니 캘리포니아 딜러십 획득

당뇨 위장병 성인병, 설당대용으로 설당이 몸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계신 사실 천혜의 청정지역 아이다호 고산지 클로버와 알팔파에서 추출한 야생건강꿀

Cox's Honey
California Exclusive Distributor
LA, OC지역 무료배달

귀국선물로 최고의 선물

\$50 5LBS

도·소매 사업자와 세일즈 하실분 모집

Jwon Trading Inc.
213-487-1116
2846 W. 8th St. #203
LA, CA 90005

HYUNDAE BIDET™ 현대비데 미주총판
Non Electric, Electric & Hybrid Type

현대비데 (병,온수)와 설치비+Tax 포함

\$119.99

1년 워런티

- 비데기능은 오직 세정
- 물탱크 없이 직수로 사용
- 위생적인 비데
- 한국제품의 우수성

- 여성전용 노즐과 노즐 자동세척기능
-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 영구적 사용
- 오도염, 방광염, 냉대하 및 자궁질환, 향문 질환 완화와 예방

타주 및 지역 대리점 모집

썩담배, 금연초~!! 100% 니코틴 프리

“기관지에 썩품 효과”

아직도 담배때문에 걱정하신가요?
100% 썩을 원료로 만들어 몸에 좋은 담배 대용품!
금연과 더불어 기관지 독성제거와 썩품효과까지!

LA, OC지역 무료배달

10칸/1보루 50%Sale **\$30**

고수익의 창출

슈퍼파워 Sale 1Box \$400 \$60

남자의 힘! 여자의 행복!

-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
- 신속하고 5일 간의 지속적인 효능
- 복용 후 1시간 이내 100% 효과
- All Natural
- 근본적 성기능 개선
- 1회 1알 만족한 효과

LA, OC지역 무료배달(2box 이상)
도매 하실 분과 OEM 생산 문의 **213-505-3355**

Made in USA

캠핑이 대세다



'마음' 가는 대로, '바퀴' 달는 대로 오토캠핑 떠나볼까?

차로 떠나는 바캉스 'A to Z' 가족여행에 안성맞춤 푸르른 자연을 만지고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일상 속의 '로망'을 꿈꾸는 당신, 지금 떠나자!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다! 캠핑의 매력

다닥다닥 뒤편에 오르는 모닥불, 캄캄한 밤 하늘에 쏟아질 듯 떠있는 별들, 뜨겁게 달군 돌 위에서 구워먹는 고기 맛. 최근 이런 낭만을 즐기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바로 캠핑족(族)이다. 특히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오토캠핑(Auto Camping)은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자연을 벗 삼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준다. 올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토캠핑으로 즐겨보면 어떨까.

“캠핑장의 좋고 나쁨은 시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글렌데일에 사는 앤드류 박(38) 씨는 요즘 주말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오토캠핑 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 TV와 게임만 알던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캠핑.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캠핑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의 반응 역시 의외였다.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동경이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여유를 찾게 되잖아요. 모닥불도 피우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질 수 있고요.”

박 씨 부부는 “올 여름 캠핑은 텐트가 아닌 RV(Recreation Vehicle의 약자) 캠핑을 하고 싶다”며 벌써부터 RV캠핑장 온라인 예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들에게 캠핑은 휴식과 사색과 삼림욕을 한 밤에 맞출 수 있는 야생체험의 진수다. 게다가 캠핑장 주변에 널린 나무는 24시간 쉼 없이 최고급 산소를 내뿜는 자연산 산소탱크들이다.

오토 캠핑은 크게 2가지다. 자기 차로 캠핑장에 가서 옆에 텐트를 치는 방식과 차 안에 거실, 화장실, 부엌까지 갖춘 여가 전용 차량 RV로 떠나는 방식이 있다. 물론 캠핑장 옆에 텐트를 치고 자는 오토캠핑도 여전히 인기다.

◆ 캠퍼들의 영원한 로망 RV로 떠나는 오토캠핑

RV는 '이동하는 집'이라 불릴 정도로 편리해 캠핑엔 이게 없으면 더없이 좋다. 차 안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등 취사시설과 숙박 샤워시설은 물론, 위성TV와 DVD 플레이어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 그리고 가족소파, 원목식탁 등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다.

육중한 RV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면 운전자가 부담은 좀 있지만, 나머지 가족은 침대처럼 퍼지는 소파에서 카드놀이도 하고 DVD를 보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도착해서도 차 옆에 달린 식탁을 펴면 바로 조리대가 마련되고, 화장실에 부엌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바로 여행지 구경에 나서거나 쉬 수 있다.

여행시 짐을 꾸리고 푸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RV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캠핑장이 된다.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숲 속이든 차 안에서 시냇물과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 시원한 밤공기를 느끼며 야외 캠핑의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오토캠핑이라 할 수 있다.

프리웨이를 달리다 배에서 '코르크' 신호가 올 때, 원하는 곳 어디나 정차하면 그곳이 바로 식당이 된다는 점도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그저 호젓한 곳에 차를 세우고 밤만 하면 된다. RV 안에 조리대에 필요한 취

사시설이 다 완비돼 있어 식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내게 '딱' 맞는 RV 고르기

자신에게 알맞은 캠핑카를 고르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RV 이용자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웬만한 오토캠핑 마니아가 아니라면 RV는 구입보다는 렌트를 훨씬 선

한 전기를 쓰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역시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업용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RV가 많으므로 면허증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더 멋진 캠핑을 원한다면 요런 것도!

Carrillo State Park)을 꼽을 수 있다. 샌타 모니카에서 1번 국도(PCH)를 타고 28마일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다. 캠핑장에서 해변으로 걸어가갈 수 있으며, 수영·서핑·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샌타 바버러 북서쪽에 위치한 '카추마 레이크 캠핑장(Cachuma Lake Campground)'도 추천할 만하다. 낚시와 수영, 보트, 크루즈 등을 즐길 수 있다.



캠핑철을 맞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RV로 떠나는 오토캠핑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호텔 못지 않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RV 캠핑장 시설도 압권이다.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샤워시설, 전기 시설에 와이파이가까지 갖춰진 럭셔리형이 대부분이다. (사진제공=캠핑카USA)

호한다. 인근 RV 전문 렌탈업소를 찾아보면 선택 옵션이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 숫자가 정해졌다면, 버스(혹은 트럭)형 RV를 빌릴지, 트레일러형 RV를 빌릴지를 정해야 한다. 버스형 RV라 할지라도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승용차나 모터사이클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트레일러형 RV를 이용한다면 목적지에서 자신의 차량과 트레일러형 RV를 분리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차량을 현지에서 단거리 이동용으로 겸해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편의사항을 정하는 일이다. 욕조가 달려 있는 것부터 텐트나 진배없는 것까지 다양하므로 자신의 여행 계획과 여행 목적지의 특성, 예산 등에 맞춰 적당한 RV를 고르면 된다.

◆ RV 렌탈비용은 대략 얼마?

RV는 차종과 차체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렌탈 비용은 보험과 세금을 포함해 하루 3백~4백불 정도로 잡으면 된다. 유류비는 운행거리와 시세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략 4천마일에 3천불 가량 예상하면 된다. RV를 렌탈하려고 하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짐까지 같이 빌리는 것과 같아 1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다. 또한 각종 주방용품, 침구류도 함께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이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샤워, 부엌 등에서 사용한 오물을 처리하지 않고 돌려주거나 차량 내부 청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클리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RV에는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대부분 충실히 구비돼 있지만, 보다 낭만적인 여행을 위해 '화롯대 세트'를 가져가는 건 어떨까. 화롯대는 모닥불을 피울 때 바닥에 까는 장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10~20여불 어치 떨감을 사기만 즐거운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있다.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가 식사를 하거나 앉아서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등을 챙겨가는 게 좋다.

야영을 원한다면 텐트도 필수다. 캠핑카에서는 전기용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에 대비해 차량용 점프케이블을 하나쯤 챙겨가는 게 좋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랜턴도 비상시에 유용하다. 깃대를 세운 후 천을 드리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장비들 '타프(Tarp)'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캠핑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꾸릴 수 있다.

◆ 준비 완료! 어디로 갈까?

캠핑카와 준비물을 갖췄다면 다음은 목적지를 정할 차례. 남가주 일원에 가볼만한 캠핑장은 너무나 많다. 가족과 함께 즐길만한 베스트 RV 캠핑장으로 '데저트 스프링스 RV 파크'를 비롯해 '버밍햄 RV 파크', '월넛 RV 파크', '오렌지랜드 RV 파크', '말리부 비치 RV 파크', '데저트 오아시스 모바일 홈 앤 RV 리조트', '선빌 레이크 RV 리조트' 등이 유명하다. RV캠핑장은 기본적으로 구획된 사이트 별로 전기, 수도, 배수구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 RV를 정차시킨 뒤 의자나 테이블을 설치하면 된다. 요즘은 캠핑장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대략 하루에 70불에서 1백불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

이밖에 사철 가족 캠핑장으로 인기가 높은 곳으로 '레오 카리오 비치 주립공원(Leo

캠핑시 유의해야 할 사항

- ① 여벌 옷 준비 = 야외 활동이다. 당연히 날씨 변수를 고려해 여벌 옷을 준비한다.
- ② 벌레 퇴치용 약품 준비는 필수 = 모기나 개미 등 벌레에 물리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벌레 차단 크림 또는 약품을 바르고 벌레 퇴치 제품도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 ③ 파상풍에 주의 = 야외에선 아무래도 넘어지거나 찰리거나 베일 수 있는 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오염된 상처로 인한 파상풍 감염에도 주의해야 한다. 캠핑 전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거나, 상처가 생긴 초기에 항독소, 항생제 조치를 취한다.
- ④ 화상에 주의 = 캠핑장에서는 화로를 비롯해 랜턴이나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발적인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1도 화상, 수포가 잡히고 통증이 심한 2도 화상, 피부신경에까지 손상을 입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3도 화상으로 나눈다. 1도 화상은 상처부위를 깨끗이 닦고 화상거즈를 대준다. 2도 화상인 경우 상처부위 소독은 1도 화상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다만 2차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도 화상인 경우 화상 정도는 심하지만 신경손상으로 통증이 오히려 덜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소독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 도움을 받도록 한다.
- ⑤ 캠핑장에서 침착할 것 = 캠핑 중 각종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응급 처치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팔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일러움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불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담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213.271.7002 웨스턴과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이민국 및 법원 서류 일체

(최고 저렴한 가격)

- ▶ 종교비자 (R-1 & I-360)전문
- ▶ 가족 및 결혼 영주권, 제반 서류 일체
- ▶ 비영리단체 (교회, 선교단체)

한미 기독교 봉사회 Tel. (213) 305-2344
1300 W. Olympic Blvd., #202, LA, CA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세명의 한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어떤병이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고 지침시 **50%할인**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차량용 영상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예기치 않은 모든 사건 사고등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컬러링,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펴 \$80.00

반드시/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33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sasafterschool.blogspot.com

말고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 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비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먹으면서도 식욕억제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약을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장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해외 선교사 양성의 요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복음주의 신학으로 무장된 GMU

다양한 장학 혜택과 높은 사역율... 인터넷 강의로 접근성 높여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GMU)는 오클라호마주 유니버시티의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은혜한인교회 내에 위치했다.

이 신학교는 예장 합동보수 해외총회의 교단 신학교로 1995년에 해외 파송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학사(B.A.), 석사(M.A.), 목회학석사(M.Div.)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신학석사(Th.M.)와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80%를 웃도는 높은 사역률과 저렴한 학비

이 신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학생이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5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수한 교수진과 저렴한 등록금이다. 해외에 파송할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학교는 많은 후원금을 학생들에게 학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다른 한인 신학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총장인 최규남 박사는 "현재 목회학석사 과정 졸업생들의 선교사 파송이나 개척 사역 비율이 8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선교사로 파송받고자 하는 부분들의 등록금이 특히 높다. 학교도 이런 점을 감안해 부부 재학 장학금을 준다. 이미 사역자이거나 선교사, 혹은 그 가족일 경우에도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다.

-복음주의 신학으로 무장

교수진들은 탈북신학교와 풀러신학교 출신, 그리고 우수한 신학교 박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많은 교수들이 한국의 총신과 달빛,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 교수진들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또 코로나 시 산 속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생활화를 위해 수련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수시로 묵상과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자랑한다.

이 대학의 학위 인증은 여러 기관을 통해 탄탄하게 돼 있다. 현재 TRACS 정회원, ABHE 준회원, ATS 준회원으로 미국의 우수 신학교들과의 학점교류도 가능하다.

-특성화된 학과목과 상담사역자 과정

복음주의와 선교 지향적 특징에 맞게 이 학교에는 기본 신학과목은 물론



최규남 부총장과 김현원 학장

론 선교학, 상담학, 기독교변증학, 리더십, 교회음악, 창조과학 등의 특성화된 전공과목이 개설돼 있다.

최규남 부총장은 "2012년부터 GMU를 더욱 선교지향적인 학교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상담사역자 과정에는 내적 치유와 목회 돌봄 과목, 위기관리, 분노관리 상담 및 결혼상담, 이혼예방상담, 재혼상담, 건강한 성을 위한 상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과목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도 많은 특강이 열려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처럼 폭넓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신학적 기본지식은 물론 전도, 선교, 제자양육, 상담 등 목회기술을 습득하며 예수의 군사로 성장하고 있다.

김현원 학장은 "우리 학교의 복음주의 신학교육과 능력있는 영성 훈련은 벌써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캘리포니아는 물론, 애리조나, 하와이 등지에서 부교역자 청빙 및 교회 개척을 위한 졸업생 파송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2세들과 영어권 위한 영어 강의 개설

이 학교의 소명에 찬 큰 사업 중 하나는 미주 한국계 신학대학으로서 처음으로 영어강의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 측은 말한다. 영어강의는 몇 과목의 특강형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신학대학 전공정을 영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세들이나 해외 선교지의 영어권 학생들, 미국 내의 히스패닉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신학대학 과정이다. 이 영어 강의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 등 문제가 심각한 주류 교계에 보수신앙으로 무장된 영어권 목회자들을 양성할 것이라 한다.

나아가 영어강의를 통역해 스페인

어와 러시아어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라는 것이 최 부총장의 설명이다.

-유학생용 I-20 발급과 인터넷 강의

이 학교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을 위해 유학생 비자용 I-20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 오고 있다. 또 2012년 가을부터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장학금과 학비유자(FAFSA)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학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강의를 통해 신학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 학교에 올 수 없는 먼 거리나 타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현재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하면서 학교에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른다. 이에 따라 학점이 충족되면 캠퍼스 학생과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 물론 캠퍼스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업을 갖고 신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학생들의 효과적 학업을 돕기 위해 E-Library 시스템도 개발됐다. 모든 학생들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여러 신학대학의 온라인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다른 대형 도서관들과도 연결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이 대학 학생증으로 바이올라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해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에반겔리안신학교의 협조로 한국 고신대학교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도 열람이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 www.gmu.edu.org에 접속하면 입학과 학교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에 방문하면 입학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714-525-0088

토마스 맹 기자

사랑의 휠체어 위한 음악회 열려

박모세 목사 "12만불 목표 중 6만불 모금돼"



박모세 목사 독창회에 수백명의 청중들이 참여해 격려하고 모금에 힘을 모았다.

지난 13년간 사랑의휠체어보내기 운동을 통해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가 바리톤을 전공한 음악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는 지난 8일 저녁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독창회를 열고 성악 실력을 뽐냈다. 그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을 하고 이 헌금으로 또다시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려 한다. 박 목사의 이번 뜻에 지인들도 동참했다. 이 콘서트에는 찬조출연으로 남가주농악교회(강상희 목사)가 수화찬양을, 숙명여대 음악대학 출신 11명으로 구성된 숙명칸테모스(단장 노혜숙)가 성악과 성가들, 본 선교회 발달장애인으로서 구성된 SDM찬양팀(지도 김애영 전도사)이 찬양을 부르고 하모니카를 연주해 은혜를 더했다.

이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박모세 목사와 박성철 사모가 함께 하는 수화 찬양이었으며, 앵콜송으로 박 목사가 노래하고 박 사모가 수화찬양을 해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목사는 "콘서트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은 기금은 목표액 12만불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



박모세 목사가 독창하고 있다.

고 사랑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콘서트의 진행은 라디오코리아 '저녁으로의 초대' 진행자인 고신미 씨가 맡았고, 개회기도는 신체장애자인 최봉근 집사(새소망교회)가 맡았으며, 헌금기도는 유의상 목사(늘사랑교회)가 맡았다. 축도는 성령경 목사(파사테나장로교회)가 맡았고, 수화봉역은 강순례 사모(남가주농악교회)가 맡았다. 문의)323-731-7724 빅터 박 기자

당분은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무공해 청정지역 아이다호에서 채취한 '야생꿀 크림하니'는 고산지대에서 저온숙성시켜 당분이 시중의 꿀보다 50% 이상 낮기 때문에 위장병이나 당뇨병이 있는 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제품이다.

실제로 주류사회에서는 토스트에 이 꿀을 발라 먹기도 한다. 또한 수분을 최대한 감소시켜 꿀의 변질이 전혀 없으며 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함유돼 있어 피로회복과 숙취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귀국선물로도 최고의 선물인 '크림하니'는 5파운드 50달러다. 또한 이 제품의 공급자인 장원무역은 미 전지역 판매 대리점 및 사업자 상담도 환영하



장원무역이 공급하고 있는 크림하니

고 있다.
▶문의 및 주문 (213) 505-3355
▶주소 2846 W. 8th St. #203
Los Angeles, CA 90005
한주연 기자

이·톡·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영일보/인터넷(AIR)www.com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즐거라~!

거침없이 내려가는 요금!

행사기간: 2012년 7월 16일 까지

~~\$34.99~~ ↓ **\$9.99**

글로벌 플러스 플랜 ■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호)

오늘 기념

글로벌 또는 글로벌 플러스 계약 플랜 가입고객 중 **선착순 신청자 15명**에 **감정원 원만쇼 공연티켓 2매 (\$160 상당)** 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이문세**

일시 2012년 7월 21일 PM 8:00
장소 LA NOKIA극장

***2012년 7월 9일 이후 신규가입고객 중 공연티켓을 LA 직영점에서 7월 19일까지 수령이 가능하신 분에 한함.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Plus** 한국 휴대전화 무제한!

무료 부가서비스 한국 070 번호 제공 **500분**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무제한!

30일 [디지털 시대 우위점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이·톡·크·비·비 iTalkBB

*월인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총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5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미이동/미통화/미발송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별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절구대 대신 친환경 천연 소재인 크레프트 카드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의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돈 한푼 없이 첫달치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그냥 드립니다.**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등짝 가져 가세요.

7월 독립 기념일 특별 세일

\$0 Down Payment

\$0 First Payment

\$0 Security Deposit



2012 NEW EQUUS

(STK:045620)

MSRP \$59,65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2012 NEW GENESIS 3.8L

(STK:193210)

MSRP \$35,26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3 NEW SONATA GLS

(STK:511730)

MSRP \$22,01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7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7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7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